

FRONT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 1968년부터 시행되어온 '대한민국 과학 기술상'을 확대, 개편한 대통령령상으로, 연구개발업적이나 기술혁신으로 국가 발전 및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들에게 수여된다. 과학기술부와

을 치료하는 약이든 방법이든 구체적인 성과물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아울러 포부 만큼이나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제약들도 만만치 않음을 덧붙였다.

“암분자생물학은 암세포의 활동과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분야 역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기에,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깁니다. 그러기에 연구과제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생명 공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른 분야보다 높은 편이고 연구분위기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연구인력·기자재의 확보도 선진국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만, 현재 한국의 대학시스템 하에서는 그 여건이 갖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강의에 일반 학사업무에 ‘덕덕한’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학자 김규원. 그러나 그는 과학만능주의자는 아니었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삶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미래에도 인류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학

“어릴 적 꿈 천직으로 이어져 행복”

제1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김규원 서울대 약학과 교수

“여러 유능한 선배들을 제쳐두고 저에게 이 상을 수여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젊은 과학자들이 더욱 분발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봅니다.” 겸손이 어색하지 않은 전형적인 과학자 김규원 교수. 그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어릴적 소망을 실현한 행복한 사람이다.

“집안이 약국을 경영하였기에 어려서부터 질병이나 의약품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지요. 얼마전 졸업후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의 소망대로 살고 있는 동창들은 드물어 보였습니다. 다들 저를 부러워하는 눈치더군요. 저 역시 과학자로서 살고자 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젊은’ 과학자임을 강조하였다.

“그동안의 성과들을 구체화하는데 더욱 매진할 생각입니다.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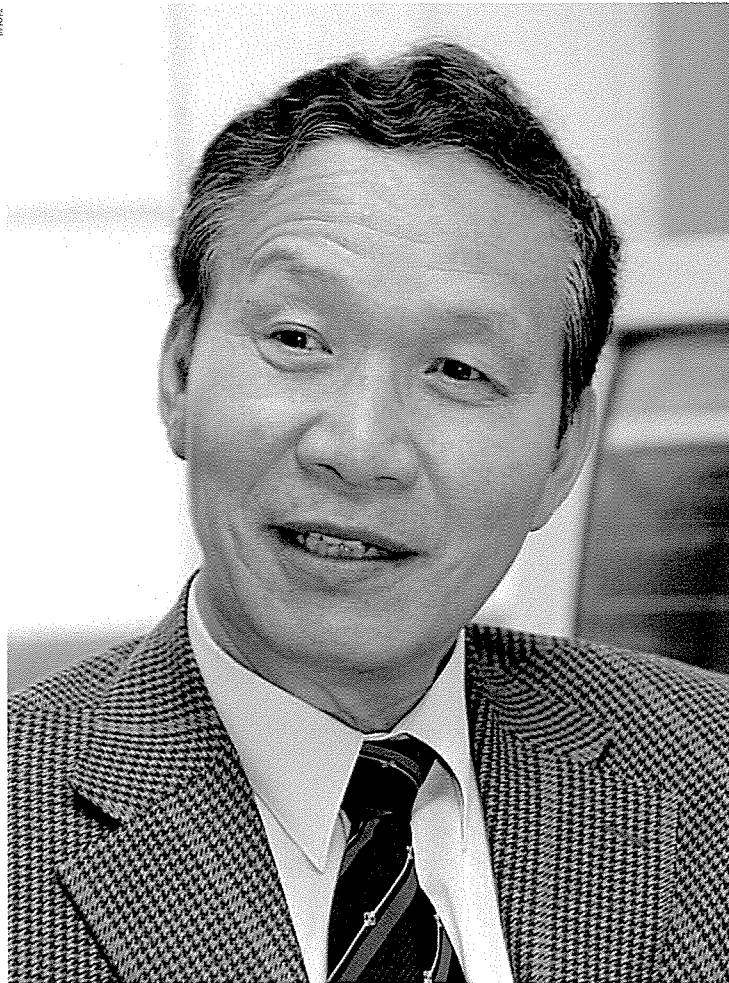
이 무조건 정확하고 옳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최근에 ‘생명복제기술’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논란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가치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임에도 대개의 과학자들이 머뭇거린 것은 스스로의 판단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지식탐구의 열정 못지 않게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위한 훈련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하는 지적이다.

김규원 교수의 연구업적

암분자생물학 분야중 혈관신생의 작용기전을 연구, 혈관의 생성과 암화과정의 해명에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거뒀다. 그의 연구논문은 Cell, Nature Medicine 등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소개되는 등 국내 암 연구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 상은 매년 4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 3억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년 첫 수상의 영에는 김규원 서울대 약학과 교수와 김진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PHOTO



“우연히 받은 것일뿐, 다른 학자들보다 뛰어나서는 아닙니다. 기초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자물리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김진의 교수의 과학자가 된 계기를 들어보자.

“어릴적부터 아인슈타인 등 유명한 과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히 과학에 대한 흥미도 갖게 됐고요. 도전의식도 강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자연현상에 관한 문제들을 풀고 싶었고, 수학적 재능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학때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지만, 물리학이 더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서 이 분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유망한 분야에 대한 유혹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요즘도 간혹 주위에서 물리학 해서 돈 되겠느냐는 소리를 듣지만 귀에 담아 두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과거를 회상하며 차분하게 흐르던 그의 목소리는 한국의 기초과학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부터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수상의 기쁨보다는 불확실한 한국 기초과학의 앞날이 더 크게 느껴지는 듯.

“‘매력없는’ 기초과학이 우리 미래를 밝힙니다”

제1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김진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한국의 기초과학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소위 이공계 기피현상입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MBA, 로스쿨, 의대 등 졸업후 쉽고 안정되며 고소득을 보장하는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과학 분야에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소수의 학생들이나 관심을 보일 뿐이죠. 그래도 미국은 자본이 있으니 부족한 연구인력을 외국 유학생으로 채웁니다. 한국의 ‘고시열풍’이나 ‘의대·한의대’ 선호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매력적인’ 학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이 매력적인 학문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학문임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 지식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지적 역량은 축적된 기초학문의 성과 없이는 강해지기 어렵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요령으로 부는 축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토양이 빈약하면 오래갈 수 없습니다. 기초과학이 강해야 응용과학도 강해집니다.”

‘과학한국’이 구호에 머물거나 얇은 정책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환기시키는 지적이다. 글 | 김규형 기자

김진의 교수의 연구업적

입자물리학 초중력 이론부문을 연구, 입자물리학자들의 꿈인 자신의 입자를 이론적으로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입자의 우주론에의 영향, 이의 발견 가능성 및 기본 이론으로 믿어지는 초끈이론으로부터 아주 가벼운 엑시온의 유도 등에 걸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이룬 학자로 평가된다.